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새로운 도약 이뤄낼 것”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큼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것입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주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 아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

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 아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

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다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회도시 광주, 눈에 보이는 변화 만든다”

강기정 광주시장 신년사

고금리, 고물가에 가뭄위까지 겹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지난 6개월 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주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맞서 왔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상생카드,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며, 소중한 생명을 잇어간 '이태원 참사'에 가슴 아파 하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향소 명칭을 바로 잡았습니다. 새깁있는 소풍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전남·대구와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초광역협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926억원이 증가한 3조 308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시민들께서 바라던 숙원사업들을 추진하고 기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56년 만에 무등산 정상 개방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됐고, 복합쇼핑몰도 공정·투명·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2단계 사업과 AI 영재고 설립도 국비 확보로 동력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과 원팀이 되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며 눈에 보이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 광주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기회의 광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삶의 기회, '창업'으로 대표되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영산강 Y벨트'로 대표되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키워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하고, '안전도시 워킹그룹'을 운영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 감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창업 인프라, 5천억 펀드, 삼성 C-Lab 아웃사이드 광주 등 혁신적으로 창업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서 AI 2단계 사업 고도화와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 중인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집적단지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영산강 Y벨트 프로젝트 추진,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내년 9월의 무등산 정상 개방까지 시민들께서 광주의 재미와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주는 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회이자 자부심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당당하게 '광주답게' 2023년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계로 뛰는 전남 대도약 원년으로”

김영록 전남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계로 뚫는 전남 행복시대'의 힘찬 출발에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개교,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과세계개발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 등 전남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전남도 새해예산은 11조8000억원이며, 국고예산은 8조65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도민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전남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올해를 '세계로 뛰는 전남 대도약 원년으로 삼으려 합니다. 전남의 강점인 농수축산업은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수출산업화 등 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미래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광양제철·유화화학단지·서남권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지역산업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살려나기도록 더 지원하겠습니다. 지중해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섬과 갯벌 등 관광자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농수축산물과 남도음식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입니다. 전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도록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전국제전'과 '국제 농업박람회', '국제 수목비엔날레', '김대중평화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권역별 대규모 청년문화센터 건립,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육성 등청년의 꿈과 희망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복지기동대는 대폭 확대하고,어르신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홀로사는 어르신 등에게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상품을 마련하고 용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일념 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전라남도 가 세계로 뚫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도전하고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어려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 '국제 수목비엔날레', '김대중평화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권역별 대규모 청년문화센터 건립,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육성 등청년의 꿈과 희망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복지기동대는 대폭 확대하고,어르신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홀로사는 어르신 등에게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상품을 마련하고 용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일념 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전라남도 가 세계로 뚫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도전하고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어려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식품산업 강국 실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